

## 책 머 리 에

—李崇寧先生 八旬紀念 論著目錄 刊行에 즈음하여—

國語가 科學的 研究 對象으로 認識된 것은 歷史가 그리 오래지 않다. 甲午更張 이후 한글이 公用文字로 채택되고 국어가 各級 學校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교수되면서부터 國語·國文이 本格的으로 研究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업은 周時經 등 愛國啓蒙思想에 기울어져 있었던 사 람들에 의하여 先導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正書法 制定을 위한 音聲, 文法이나 辭典編纂을 위한 語彙의 蒐集·研究에 치중한 나머지 국어의 構造나 歷史를 科學的으로 分析하는 일에 專力할 틈이 없었다. 이 점 植民地時代에도 마찬가지였다. 正書法 制定과 사전 편찬을 위한 基礎的인 音聲研究과 文法研究의 基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어에 대한 科學的 研究方法論은 植民地時代에 京城帝國大學에서 言語學을 練磨한 一群의 韓國人 語學徒들에 의해 자리를 잡았다. 國語學 專攻의 李熙昇·李崇寧·方鍾鉉 등은 1931년 趙潤濟·金在喆·李在郁 등의 國文學 專攻의 朝鮮語文學科卒業生 및 在學生과 힘을 합쳐 朝鮮語 文學會를 創立하고 그 會報를 냄으로써 국어국문학의 科學化를 위하여 새로운 出發을 시도하였다. 이들 會員 가운데에서 心岳 李崇寧 先生은 대학 시절에 익힌 歷史言語學의 바탕 위에서 國語史 특히, 音韻史에 관련된 주제를 集中的으로 연구하셨다. 대학 졸업 논문인 ‘국어의 히아 투스(Hiatus) 현상’을 비롯하여 類推, 움라우트(Umlaut), 異化作用, 音韻轉移, 音의 音價 및 變遷에 관한 一連의 論攷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科學性을 띤 업적이었다.

李崇寧 선생은 解放 후에도 國語音韻論 분야에 관련된 업적을 계속 내시어 국어학의 科學化에 크게 寄與하셨고 後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 치셨다. 오늘날의 國語學 專攻者로서 선생의 鑿駭에 접하지 않은 사람 이 없을 정도로 선생의 영향은 至大하였다. 李崇寧 선생은 그 후 國語 學史, 古代 및 中世의 文法, 方言文法, 語彙論, 알타이語 比較文法으로 관심을 확산시켰으며 최근에는 自然保護에 관련된 논문도 발표하고 계

시다. 八旬이 된 지금까지 學術論文 130 여편이라는 韓國 現代學問史上 가장 편수가 많은 업적을 내시게 되었다. 선생은 전문적인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雜誌나 新聞에 論說·隨筆도 많이 발표하셨다.

李崇寧 선생은 해방이 되던 1945년부터 1973년 停年退任時까지 서울 大學校 國語國文學科에서 後進을 양성하셨다. 八旬을 맞은 지금도 大學院 博士課程에서 젊은 후학들에게 國語學을 講義하고 계시다. 이에 우리 學科에서는 선생의 學德을 기린다는 뜻에서 學科研究誌인 冠嶽語文研究 第11輯을 八旬紀念 論著目錄 特輯號로 계획할 세우고 論著目錄集 編纂委員에 高永根, 沈在箕, 李秉根(가나다順)을 選任하였다. 우리들 편집 위원은 선생의 論著를 單行本, 論文, 書評·論戰, 序文·祝辭·刊行辭·監修辭, 雜記의 5個分野로 나누어 간행 사항을 자세히 밝혔다. 外國에서 나온 논저 목록을 보면 親知나 후배, 동료, 제자에게 써 보낸 편지까지도 포함시키는 일이 있으며 大學에서 말았던 講義題目까지 넣는 일이 있다. 이 점 後日을 기하여 보충할 생각이려니와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刊行되는 이 論著目錄集은 그런대로 우리의 學問史에 새로운 紀元을 그은 것이 틀림없으리라 믿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큰 業績을 남긴 학자들에 대하여 이런 사업이 즐기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論著目錄集을 만드는 과정에서 有益한 助言을 주신 李基文, 安秉禧 교수들 비롯한 서울 大學校 國語國文學科 교수 여러분과 原稿 整理 및 校正에 힘쓴 李浩權, 高晟煥, 金星奎 君 등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後學들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1987年 2月 27日

서울 大學校 人文 大學

國語國文學科長 高 永 根 삼가 적음